

인민경제의 주체화수준을 특징짓는 통계지표설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림 광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46페이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실현수준을 통계적으로 옹게 장악분석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옹게 세워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실현수준에 대한 통계적장악과 분석은 그를 위한 통계지표들의 설정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한다.

지난 시기 연구에서는 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대한 통계적연구가 심화되어 그를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이 설정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본질적내용과 그의 중요징표들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원료, 자재의 자급률, 설비의 주체화 등 개별적인 측면에서 주체화수준을 특징짓는 지표들이 설정되어 그에 대한 계산분석이 진행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수준을 통계적으로 옹게 장악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담고있는 본질적내용에 맞게 그를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통계지표들을 설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실현수준을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지표들을 설정하여 장악분석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설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을 옹게 설정하는것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다면성과 종합성으로 특징지어지는것만큼 이것은 곧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물질적수요를 보

장할수 있도록 생산부문들이 갖추어진데서 표현되며 종합성은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생산의 전과정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재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데서 표현된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은 우선 부문구성비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를 통하여 특징지을수 있다.

부문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에 기초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짓는다는것은 국내총생산액에서 개별적부문들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개별적부문의 총생산액가운데서 내부부문들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기초하여 특징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부문내부구성비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text{부문내부 구성비} = \frac{\text{개별적내부부문 총생산액}}{\text{해당 부문의 총생산액}} \times 100(\%)$$

이 지표는 해당 시기 일정한 시점에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상태를 보여줌으로써 나라의 경제가 다면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있는가를 보여주는데서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서는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의 요구에 맞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정도를 특징짓는데서는 제한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문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는 그것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의 호상련관속에서 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짓는데서는 제한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은 또한 생산물수요충족결수지표를 통하여 특징지을수 있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를 통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짓는다는것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현재의 생산액 또는 생산능력을 대비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를 계산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지을수 있는것은 다면적인 부문구조를 갖추는 목적이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자는데 있으며 이것이 곧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정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이기때문이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text{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 = \frac{\text{현물적인 생산량(또는 생산능력)}}{\text{생산물에 대한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는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생산부문이 사회적수요에 맞게 갖추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의 본질적내용으로부터 부문별로 현물적으로 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여러가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따라서 개별적인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현물적인 수요로 나타나기때문이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생산계획자료에 기초하여 규정할수도 있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규정할수도 있다.

만일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에 기초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

성을 특징짓는다면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에 의한 수요충족결수지표들을 설정할수 있을 것이다.

단순평균에 의한 수요충족결수지표에 의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특징짓는 방법은 매개 생산물들의 수요충족에서의 중요성을 같은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해당 시기 전인민경제적범위와 장기적인 전략적견지에서 볼 때 매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다같이 충족시킬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중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충족정도를 분석계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각이한 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들을 평균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특징지을 때에는 중요한 생산물만을 선택하든가 또는 가중평균에 의한 수요충족결수지표를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연구되는 표식은 수요충족결수이며 무게는 각이한 생산물들의 생산액으로 될수 있다.

그리고 해당 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가 1을 넘는 경우에는 1로 제한하며 생산액도 그 수준에 맞게 제한하여 무게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부문의 수요충족정도가 다른 부문의 부족되는 수요충족정도를 메꿀수 있는 경향을 없앨수 있다.

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에서 분자에 해당 생산물의 현물적인 생산량을 놓게 되는것은 현실적인 수요충족정도를 알자는데 있으며 생산능력을 놓게 되는것은 잠재적인 수요충족정도를 파악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부분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정도를 특징짓자면 주로 현재의 생산량과 대비하여야 하며 새로운 부분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정도를 특징짓자면 새로 조성된 생산능력과 대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을 설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를 갖추었다는것은 생산물의 시초생산단계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국내적범위에서 완결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로서 우선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지표를 설정할수 있다.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지표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정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가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료, 반제품생산단계의 비중이 완제품가공단계에 비하여 훨씬 큰것이 일반적인것으로 된다.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은 다음과 같은 지표에 의하여 특징지을수 있다.

$$\text{생산물의 가공 단계별비율} = \frac{\text{완성단계의 생산고}}{\text{시초단계의 생산고}}$$

이 지표는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도 계산할수 있고 하나의 부문내에서도 계산할수 있다. 그것은 생산물이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완성될수도 있고 한 부문내에서 내부부문들사이에서 완성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생산물의 가공단계별비율지표는 전인민경제적인 가공단계별비율지표와 개별적부문의 가공단계별비율지표로써 구체화할수 있다.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가공단계별비율지표는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최종생산물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해당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완성단계의 부문으로 보고 나머지부문은 시초단계의 부문으로 설정하여 경제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지표라고 할수 있으며 개별적부문의 가공단계별비율지표는 개별적인 부문에서 최종생산물생산부문에 속하는 부분들을 완성단계의

부문으로 보고 나머지부문을 시초단계의 부문으로 설정하여 경제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이 지표는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관의 견지에서 시초단계와 완성단계사이의 호상련관을 직접적으로 특징지을수 있는데서는 우점을 가지고있지만 해당 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의 견지에서 경제의 종합성을 특징짓는데서는 제한성을 가질수 있다. 다시말하여 생산고지표가 화폐표시지표로 계산되어야 하는 조건에서 두 단계의 생산고를 서로 대비하게 되면 일정한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가공단계별비율을 잘못 평가하게 되는 제한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경제의 종합성정도를 생산물의 수요충족정도에 의하여 특징짓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로서 또한 생산물의 가공단계별수요충족결수지표를 설정할수 있다.

이 지표는 시초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수요충족의 견지에서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볼 때 시초원료에 대한 수요는 생산적수요로 제기되며 완제품에 대한 수요는 생산적 및 비생산적소비수요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생산물의 가공단계별수요충족결수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설정할수 있다.

$$\begin{aligned} \text{시초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 &= \frac{\text{시초단계의 생산고(또는 생산능력)}}{\text{시초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 \text{시초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결수} &= \frac{\text{시초단계의 생산고(또는 생산능력)}}{\text{시초단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end{aligned}$$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설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주체화수준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을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경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것을 징표로 하는것만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지표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정할수 있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가 발전한다는것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하며 설비와 생산공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만들어 생산과 건설에 보장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화수준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로서는 우선 원자재, 연료의 주체화률지표를 설정할수 있다.

원자재, 연료의 주체화률지표는 국내에서 제기되는 원자재와 연료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국내산원자재와 연료에 의하여 충족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연료의 주체화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text{원자재(또는 연료)의 주체화률} = \frac{\text{국내산원자재(또는 연료)량}}{\text{원자재(또는 연료)총량}}$$

이 지표는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화되어 설정할수 있다.

이 지표는 개별적인 원자재, 연료종류별로, 개별적인 제품별로, 부문 및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설정할수도 있고 소비량 또는 공급량(공급원천)의 견지에서 설정할수도 있다.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원자재(또는 연료)의 주체화률은 원자재(또는 연료)공급원천

또는 원자재(또는 연료)공급실적에서 국내산원자재(또는 연료)의 비중으로 설정할수 있다.

원자재(또는 연료)의 주체화률은 개별적인 기업소나 단위들에서는 물론 부문적 혹은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계산할수 있지만 개별적인 기업소나 단위에서 계산하는것보다 부문 혹은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계산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 그것은 경제의 주체화라고 할 때에는 개별적단위들을 넘두에 둔것이 아니라 전인민경제적인 범위를 넘두에 두고 쓰는 개념이기때문이다.

주체화수준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로서는 또한 설비의 주체화률지표를 설정할수 있다.

설비의 주체화률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있는데 그중 하나는 개별적설비의 주체화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소범위 혹은 단위에서의 설비의 주체화률이다.

설비의 주체화률은 연구목적에 따라 현물적 또는 가치적으로 설정할수 있다.

우선 현물적측면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지표를 설정할수 있다.

개별적설비의 주체화률은 현물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수 있다.

$$\text{개별적설비의 주체화률} = \frac{\text{국내산부분품수}}{\text{개별적설비의 부분품수}}$$

기업소범위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은 해당 기업소 혹은 단위들에서 가지고있는 설비가운데서 주체화된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업소범위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수 있다.

$$\text{기업소범위에서 설비의 주체화률} = \frac{\text{주체화된 설비대수}}{\text{총설비대수}}$$

현물에 의한 주체화률지표는 해당 설비 또는 해당 단위의 주체화정도를 쉽게 알수 있다는데서 우점을 가지고있지만 설비의 주체화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수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 지표는 기본설비이건 보조설비이건 상관없이 매 설비들이 해당 생산기술공정상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매 설비들의 중요성정도가 다 같다고 본 관점에서 출발하여 설정된것이다.

이 지표로 기업소범위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생산기술공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설비가 아니라 보조설비와 같은것들을 위주로 하여 주체화를 실현하여도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즉 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것처럼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소의 기술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를 주체화하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그것은 주체화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가치적측면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을 설정할수 있다.

기업소범위에서 설비의 주체화률은 해당 기업소의 설비총액가운데서 주체화된 설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화폐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수 있다.

$$\text{기업소범위에서의 설비의 주체화률} = \frac{\text{주체화된 설비총액}}{\text{설비총액}}$$

설비의 주체화률지표를 설정할 때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설비의 질적측면을 보장하면서도 해당 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외화를 설비수입가격의 5분의 1로 낮추었을 때 주체화된 설비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이 경우에 설비의 질적측면을 고려한 주체화률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계산할수 있다.

$$\text{기업소범위에서의 설비의 주체화률} = \frac{\text{주체화된 설비총액}}{\text{설비총액}} \times \text{설비의 질적측면을 고려한 환산결수}$$

주체화률지표는 해당 부문의 생산기술적특성에 따라 각이하게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다시말하여 원자재 및 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원자재 및 연료의 주체화률지표를 통하여 자립성과 주체성정도를 평가하며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설비의 주체화률지표를 통하여 자립성과 주체성정도를 평가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지표들은 이밖에도 생산공정의 측면에서 주체화된 생산공정의 완비정도, 경제의 수입의존도 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하여 설정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수준은 그 본질적내용으로부터 그 어떤 하나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특징짓기 힘들며 우와 같은 여러가지 지표들을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수준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방법론적문제들을 당의 정책적요구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주체화, 자립성